여수,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 시사회

오늘 여수문화홀서 시민 누구나 무료관람
김 대통령의 굴곡지고 찬란했던 삶 재조명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일생을 바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그린 다큐영화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의 시사회가 25일 오후 4시 여수문화홀에서 열린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은 '1919유관순'을 연출한 신상민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방송인 이금희 씨가 내레이션을 맡았다.

영화는 김대중 대통령과 깊은 인연이 있는 한완상, 백낙청, 라종일 등 주변 인물의 인터뷰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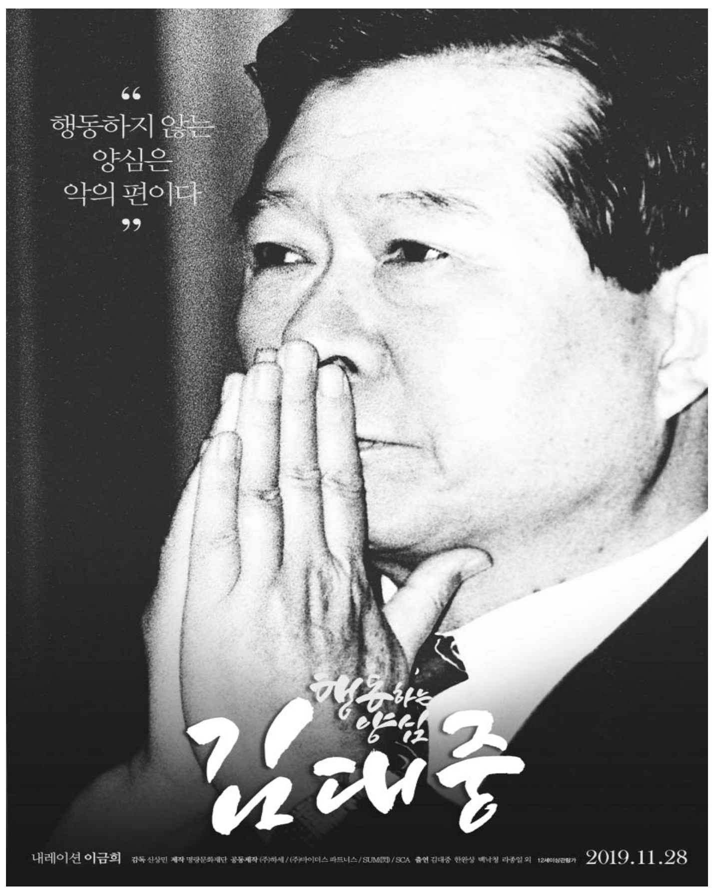
5번의 죽을 고비, 민주화를 향한 고난과 역경, IMF 극복, 햇볕정책, 노벨평화상 수상 등 김 대통령의 굴곡지고 찬란했던 삶을 재조명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문화예술과(659-473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사회는 신상민 감독의 영화 소개와 70여 분의 영화 상영 등으로 꾸며진다"면서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화 제작사인 (재)명량문화재단은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을 오는 28일 전국 150개 영화관에서 일제히 개봉할 예정이다.

여수=김도현 기자



화순농협, 제3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

화순군은 22일 도곡면에서 도곡농협 제3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제3APC)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구충곤 화순군수, 손금주 국회의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화순·나주지역위원장, 강순팔 화순군의회 의장, 문행주 도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도곡농협 제3APC는 지난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공사를 시작하고 지난달에 3층 건물 신축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37억 원을 들여 1300여 평 부지에 972평 규모로 지어진 제3APC에 화순군은 15억1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제3APC는 선별장, HACCP 소포장 시설, 저온저장·입출하 시설, 검수실 등을 갖추고 연간 90여억 원(복숭아 50억·방울토마토 40억)규모의 지역 특화 품목을 상품화할 예정이다.

구충곤 군수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농산물 소비패턴의 변화로 농산물 상품화와 유통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오늘 제3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준공이 농산물 상품성 강화와 유통체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고흥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큰 호응 얻어

AED 관리자 67명 참여

고흥군은 지난 21일 고흥군보건소 회의실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기관 관리자 67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 등에 대해 청암대학교 박상욱 교수를 초빙하여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이론 및 심폐소생술,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실습으로 이어졌다.

이날 교육은 1:1 맞춤형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을 습득하게 하여 교육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이해하기 쉽도록 응급상황별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진행 교육의 만족도를 높였다.

심폐소생술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하여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응급 처치술로 간단한 요령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급처치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인 4분 안에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나주, '양심 종량제 봉투 수거함 설치'

수거함 외국어 표기 눈길

나주시 성북동은 22일 관내 농촌 마을 입구 및 대학가 원룸 주변 등 생활 쓰레기 배출이 잦은 지역에 성숙한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양심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성북동은 '우리 동네 양심을 담아요'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 쓰레기 무단 투기에 따른 악취와 미관 훼손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잦았던 취약지역에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자체 제작해 설치했다.

특히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에는 종량제 봉투 사용이 낯선 외국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방법을 한글과 외국어로 표기해 눈길을 끈다.

강주장 성북동장은 "이번 양심 종량제 봉투 수거함을 통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 소각 등이 줄어들고 봉투 사용이 생활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성북동을 위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군, 숲가꾸기 기간 맞아 1일 체험

담양군은 22일 숲가꾸기 기간(11. 1 ~ 11.30)을 맞아 숲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담양군, 유관기관 관계자, 산림사업 근로자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메타랜드 일원에 식재된 메타세쿼이아 가지치기, 대나무 지주목 제거 등 건강한 도시숲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를 체험하며 숲의 소중함을 느꼈다.

임흥준 산림정원과장은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숲 가꾸기를 통해 담양군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어 미래천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제26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보성군의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26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제2차 정례회는 11월 25일 1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 11월26일~12월4일까지 9일간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 12월 5일 ~ 12월 16일까지 12일간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

보성=안구일 기자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결과보고

영광군은 지난 20일 영광읍사무소 3층 대회의실에서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6일부터 5일 동안 펼쳐진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에 대한 외부 평가용역 결과 보고를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는 엑스포 기록 영상 시청, 성과 및 결과보고, 엑스포 평가용역 보고, 토론 및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평가용역 발표자로 나선 김정태 교수(동양대학교)는 "작년 대비 관람객·참여기업 모두 프로그램 전반이 질적·양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영광=서희권 기자